

## 안동 용상-남선 신석 간 교량가설공사부지 내 제방유적 현장공개설명회 안내

- ◎ 조사기관 : (재)성림문화유산연구원
- ◎ 일 시 : 2025. 11. 21.(금) 14:00~
- ◎ 현장설명회 위치 : 발굴조사현장-안동시 용상동 1518-65번지  
(선어대 축산 주차장(안동시 경동로108-10))



- ◎ 공개내용 : 발굴조사성과 설명, 현장 견학, 질의 응답 등
- ◎ 문의사항 - (재)성림문화유산연구원 조사팀장 전상욱(010-4516-4030)  
※단체 현장설명 희망시 별도문의

# 안동 용상-남선 신석 간 교량가설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

## □ 일반현황

- 위 치 : 안동시 용상동 1518-65번지 일원
- 시 기 : 조선시대
- 조사된 제방길이 : 약 360m

## □ 주요 연혁

### \*송제 및 송제사적비

송제는 낙동강 본류와 합류되기 전 반변천에 쌓은 제방으로 이 내용에 따르면 제방의 축성과 보수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있다.

송제의 규모는 1606년 함께 건립된 포항제의 비문에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“높이가 수인(數仞) 넓이는 육장(六丈(尺)) 연가이백보(延可二百步) 전보다 더 높게 쌓았다.”라는 기록에 제방의 보수 너비는 약 18m, 길이는 약 364m로 추정된다.

이번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제방의 보수 길이가 360m로 조사되어 그 내용이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## □ 조사개요

- 조사목적: 축성시기, 축성기법 등을 파악하여 제방의 성격 규명  
조사를 통해 제방시설의 보존, 정비,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
### ○ 조사내용

- 시굴조사 : 2025. 01. 10. ~ 01. 17.
  - 대상 : 송제 제방시설 추정지(5,302㎡)
- 1차 발굴조사 : 2025. 03. 31. ~ 2025. 06. 27.(1,784㎡)
  - 대상 : 교량가설 및 도로공사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
- 2차 발굴조사 : 2025. 8. 28. ~ 진행중.(2,362㎡)
  - 대상 : 1차 발굴조사를 제외한 송제 제방시설 추정지

## □ 주요 조사성과

◎ 안동 반변천에 남아있는 “송제비” 및 “송제사적비”의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제방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조선시대 수리시설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.



제방 유적 위치



1차 조사 제방(석축보강) 전경



2차 조사 제방(석축보강) 전경



2차 조사 PIT 1 전경



2차 조사 PIT 1 토층 전경



2차 조사 PIT 1 토층 세부



2차 조사 PIT 2 전경



2차 조사 PIT 2 토층 전경



2차 조사 PIT 2 세부



토축제방 1



토축제방 2